

Microsoft Azure



최신 IT 환경에 관한 DIY 가이드

유연성 극대화를 목표로 한 청사진 작성





목차

- 3 유연한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이전
- 4 이상적인 생산성 모델 설계
- 5 1단계: 위험 부담이 적은 앱부터 이전하라.
- 8 2단계: 테스트/개발 단계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전하라.
- 10 3단계: 솔루션 지원 범위를 넓혀라.
- 12 4단계: 현재 사용 중인 시스템을 고려하라.
- 14 DIY를 넘어서
- 15 스스로 DIY 솔루션을 구상하십시오.



유연한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이전 서론

프로세스와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일에는 시간이 걸리는데 오늘날의 IT 부서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시간 부족에 허덕입니다. 클라우드 솔루션이 뚜렷한 효과를 발휘하지만 너무 복잡한 데다 시간도 많이 소모되는 탓에 그렇게 되기가 요원해 보입니다. IT 부서에는 더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더 많은 성과를 거둬야 하는 임무가 꾸준히 주어집니다. 솔루션 설계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솔루션 설계자는 최신 기술을 새로 배운다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만 그 대신, 최신 기술의 복잡한 내용과 그 기술이 자사에 어떤 이점을 제공하는지 이해해야 하는 부담도 함께 떠안아야 합니다.

하이브리드 IT 환경으로 이전하려면 어떤 환경이 이상적인지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유연성 극대화에 이상적인 청사진을 작성할 수 있다면,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중 택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IT를 확장하는 것이 당연한 선택입니다. 아마도 이런 청사진은 최대 규모의 안전한 개인 통신 네트워크와 데이터 보관 및 암호화 기능을 지원하는 스토리지 솔루션을 통해 기존의 IT 환경에 손쉽게 접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원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곳에 자원을 배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온라인 가이드에서는 오늘날 IT 부서가 직면한 과제와 최신 기술이 선사하는 기회를 탐구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상적인 환경의 특징을 규정한 후, **효과적인 4가지 단계**를 소개하고 나서 유연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 청사진 작성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위험 부담이 적은 앱부터 이전하라.



2단계:

테스트/개발 단계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전하라.



3단계:

솔루션 지원 범위를 넓혀라.



4단계:

현재 사용 중인 시스템을 고려하라.





이상적인 생산성 모델 설계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실행되면서 효율성 및 생산성 개선 효과를 창출하는 인프라를 설계할 수 있는 유연성이 확보된다면 어떨지 상상해보십시오. 스스로 IT 환경을 설계할 수 있다면 IT 부서의 업무 효율이 얼마나 향상될지 생각만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무언가를 분해했다가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조립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자신이 아이디어의 창시자이자 사물의 창조자가 된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본인이 무슨 일을 해냈는지 또는 그 일을 어떻게 해냈는지 비밀로 한 채 자신이 해낸 일과 그것을 해내기 위해 고안한 새로운 방법을 떠올리며 뿌듯해 했을 것입니다.

회사의 IT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데이터 스토리지 관리 업무도 병행하기 마련입니다. IT 책임자는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테스트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내에 배치된 레거시 시스템만으로는 이 모든 작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공간이나 성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솔루션을 모색하는 일도 IT 책임자의 업무이지만, 적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찾아낼 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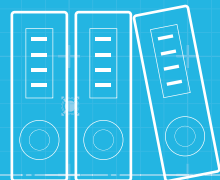
완벽한 모델을 설계할 수 있다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무한한 스토리지 용량이 중요할까요? 단언컨대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손쉽게 공유하고 데이터를 토대로 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할지 가령, 사내에 저장할지 아니면 클라우드에 저장할지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중요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기술과 보안에도 큰 비중을 뒀야 할까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기술에 부담해야 할 비용은 어떨까요? 필요한 규모나 용량에 따라 비용이 조정된다면 언제든 마음을 바꿔도 되니 편리할 겁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역량과 기술을 동원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더욱 빠르고 손쉽게 구축하고 관리하는 데 유용한 도구, 템플릿, 관리형 서비스를 확보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양한 운영체제, 프로그래밍 언어, 프레임워크, 데이터베이스, 장치를 지원해서 선택하는 데 걸림돌이 없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겁니다.

유연한 클라우드 모델이라면 이 모든 최상의 시나리오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회적 통념이 무색하게도 빠르고 힘들지 않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선호했던 방식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DIY(Do-It-Yourself) 모델은 Windows 10, OSX, Linux를 비롯한 모든 운영체제와 원활하게 통합되며 어떤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을 가장 먼저 이전하고 얼마나 빨리 이전을 마칠지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돋보입니다. 단순히 자산을 클라우드에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꿈에 그리던 IT 환경을 구축한다는 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무한한 스토리지 용량



스토리지 유연성



종량제



위험 부담이 적은 앱부터 이전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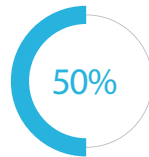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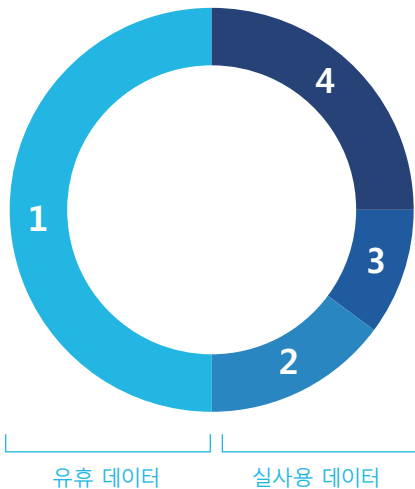
1단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IT 환경을 구현한다고 해서 반드시 많은 비용과 시간을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험 부담이 적은 애플리케이션부터 시작하는 제법 간단한 4단계 프로세스를 활용하면 됩니다. 1단계는 클라우드 플랫폼의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기 좋은 시점이기도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인프라의 대부분(50~70%)은 사용률이 5~10%에 불과한 데이터와 프로젝트가 차지합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가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의 소중한 공간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는데, 규정 준수 목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용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데이터 저장과 백업에는 큰 비용이 들지 않는 데다 복구하기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단순한 유휴 자산을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데 수반되는 위험 부담은 아주 낮은 반면 ROI 효과는 큼니다.

시작하기

IT 포트폴리오(비용, 자원, 수고)



1. 애플리케이션 사용률

앱 인프라 중 50~70%는 사용률이 5~10%에 불과합니다. 프로젝트는 이전하는 데 수반되는 위험 부담은 아주 낮은 반면 ROI 효과는 큼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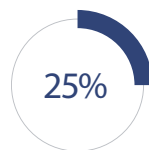
2. 구매한 앱

어떤 온프레미스 앱을 SaaS 모델이나 Microsoft Azure(Office365/Exchange/SharePoint, CRM 등)로 이전할 수 있는지 파악하십시오.



3. 구현하고 싶은 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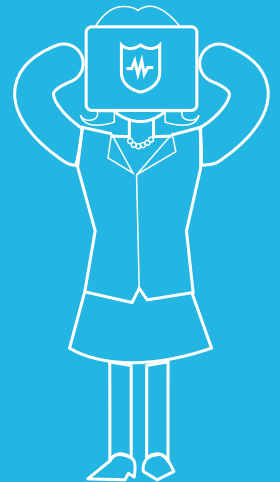
Microsoft Azure PaaS 구성 요소를 활용하십시오. 생산성은 더 우수한 데 반해 필요로 하는 인프라 작업은 더 적습니다.



4. 이미 구축한 프로젝트 앱

맞춤 제작한 기존의 앱 중 80%는 그대로 두십시오.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규모는 작으면서 사용률은 대단히 높은 앱만 일단 이전하십시오.

대량의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이전할 때 많은 IT 부서가 직면하는 최대 난제 중 하나는 규제 요건을 충족하면서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GE Healthcare는 규정 준수와 프라이버시 문제가 전반적인 효율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엄격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솔루션을 찾는 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위험 부담이 적은 애플리케이션 이전하라.

1단계



사례 연구: GE Healthc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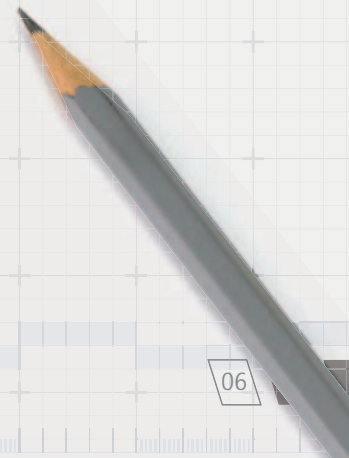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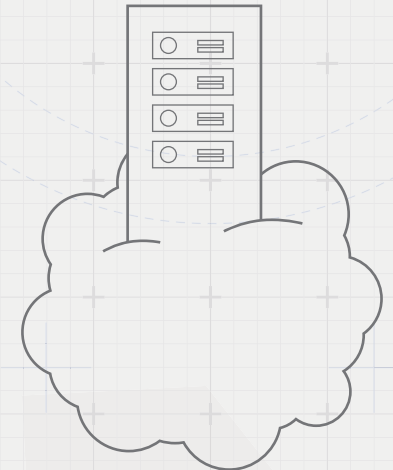
GE Healthcare IT와 GE Healthcare Global Services는 고객에게 더욱 안전하고 유연한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이상적인 솔루션을 물색하던 중이었습니다.

두 사업 부문의 고객들은 데이터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가시성과 통제를 통해 효율성과 임상 치료 효과를 개선하길 원했지만 환자 정보를 보호하고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일 역시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GE는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이전함으로써 온프레미스 인프라에 시간과 비용을 추가로 투자하지 않고도 이와 같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HIPAA BAA의) 보안 및 프라이버시 관련 계약 조항에는 규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플랫폼의 개방성에 힘입어 기존의 도구를 업무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GE Healthcare는 개발 단계부터 테스트 및 고객 대상의 시범 도입 단계에 이르는 전체 프로세스에서 클라우드 플랫폼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 환자, 병원 관리자 간의 소통 구조가 능률화되면서 검사 결과 및 보고서에 실시간으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GE는 **Microsoft Azure** 플랫폼 도입에 따른 결실로 혁신에 소요되는 시간과 출시 시기 단축, 보다 우수한 유연성, 운영비 절감 효과를 거뒀습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저렴하고 확장하기 용이한 데다, 많은 시간과 수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업이든 확장성, 보안, 경제성이 동반된 데이터 보호를 보장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를 원하기 마련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업무상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은 가장 마지막에 이전해야 합니다. 우선 데이터 스토리지와 백업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이전해서 단순성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Ipanema Solutions**도 중요 백업 서비스를 다루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선택할 때 이와 같은 전략을 철저히 추구해서 인프라 비용이 추가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GE는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이전함으로써 온프레미스 인프라에 시간과 비용을 추가로 투자하지 않고도 모든 목표를 달성하고 기존의 도구를 업무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험 부담이 적은 애플리케이션 이전하라.

1단계



사례 연구: Ipanema Solutions

Ipanema Solutions는 사업상 중요한 백업 서비스를 단순화하고 개선하고자 전 세계 여러 데이터 센터를 통해 고객에게 암호화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제공하는 **Microsoft Azure Backup**으로 바꿨습니다. 덕분에 Ipanema Solutions는 주 사이트가 마비되더라도 테이프에 저장된 데이터를 복구할 필요 없이 Azure에서 곧장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백업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택할 때 질문해야 할 5가지 사안

- ① 데이터 유실이나 서비스 중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빨리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가?
- ② 복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 ③ 문제가 발생한 경우 어떤 종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 ④ 클라우드 백업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데이터가 저장된 하드 드라이브를 제공 받거나 손쉽게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런 서비스를 받을 때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
- ⑤ 클라우드 백업 서비스 제공업체를 바꾸기로 결정하거나 사업에서 손을 떼려는 경우 데이터를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가?

"Azure는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데
더없이 유용한 무기입니다."

— 제프리 와호냐(Geoffrey Wahonya),
Ipanema Solutions 네트워크 운영 팀장



테스트/개발 단계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전하라.

2단계

유휴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옮기고 나면 테스트/개발 단계의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이전할 차례입니다. 이와 같은 상시 가용 상태의 자원은 실제 환경의 소중한 공간만 차지할 뿐 사용률이 아주 낮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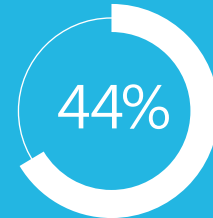
테스트/개발 환경은 생산성이 미흡하고 (모바일 기기를 통한) 접근에 제약이 있으며 통신과 협업의 병목 현상을 초래합니다. Voke의 2014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은 테스트/개발 목적으로 평균 33대의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18대로 한정됩니다. 설문에 응한 기업 중 단 4%만이 필요할 때 바로 테스트/개발 환경에 접속할 수 있다고 응답했고, 대다수는 수일이나 수주를 기다려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같은 제약 때문에 개발이 더뎠거나 중단된다고 답한 응답자는 44%였고 테스트가 더뎠거나 중단된다고 답한 응답자는 68%에 달했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클라우드는 통신과 협업 개선 효과를 창출하는 중앙집중식 환경을 지원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며칠이나 몇 주가 아닌 몇 시간만 기다리면 테스트/개발 환경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이용한 앱 개발이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시험 단계의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이전하면 실 세계의 상황을 미리 시뮬레이션해서 문제를 파악한 후 실제 사용에 들어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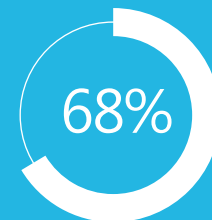
다시 말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쓸모 없는 시행착오로 인한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테스트/개발 단계의 앱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중 실제로 테스트해야 하는 몇 시간 동안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원과 테스트/개발에 사용해야 하는 이와 같은 서버와 시스템은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실사용 단계에 돌입하면 수정해야 할 때까지 테스트/개발용 시스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점도 투자 위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날의 IT 부서는 변화하는 비즈니스 상황에 발맞춰 대처해야 합니다. 과거에 지원 업무로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전략적 차별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경쟁 압박과 도입 시간 단축의 필요성이 무색하게도 클라우드는 거의 모든 산업에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합니다. 미래 지향적인 기업들은 이와 같은 새로운 동력원을 수용하는 데 적극적이며 이를 경쟁사와 차별화될 수 있는 비결로 여깁니다.

테스트/개발 환경에 관한 Voke의 2014년 설문조사 결과



44%의 응답자는 이용 제약 때문에 개발이 더뎠거나 중단된다고 답했습니다.



68%의 응답자는 이용 제약 때문에 테스트가 더뎠거나 중단된다고 답했습니다.¹

**클라우드는 며칠이나
몇 주가 아닌 몇 시간만
기다리면 접속할 수
있는 중앙집중식 통신
및 협업 환경을
지원합니다.**



테스트/개발 단계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전하라.

2단계

easyJet

사례 연구: easyJet

사례 요약: 항공사인 **easyJet**의 최우선 목표는 필요한 기능을 발 빠르게 구현하고 변화하는 요구사항에 대응하면서 고객들이 좀 더 쉽고 더 저렴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easyJet은 기존의 온프레미스 솔루션에 과도한 비용을 투자하기 않고도 자사의 등록 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해 **Microsoft Azure** 플랫폼에서 실행되는 좌석 배정 앱이 포함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을 구현했습니다. 새로운 플랫폼 덕분에 easyJet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을 뿐더러 클라우드에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배포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능력도 확보하게 됐습니다. 당연한 결과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새로운 서비스를 더욱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고객 만족도도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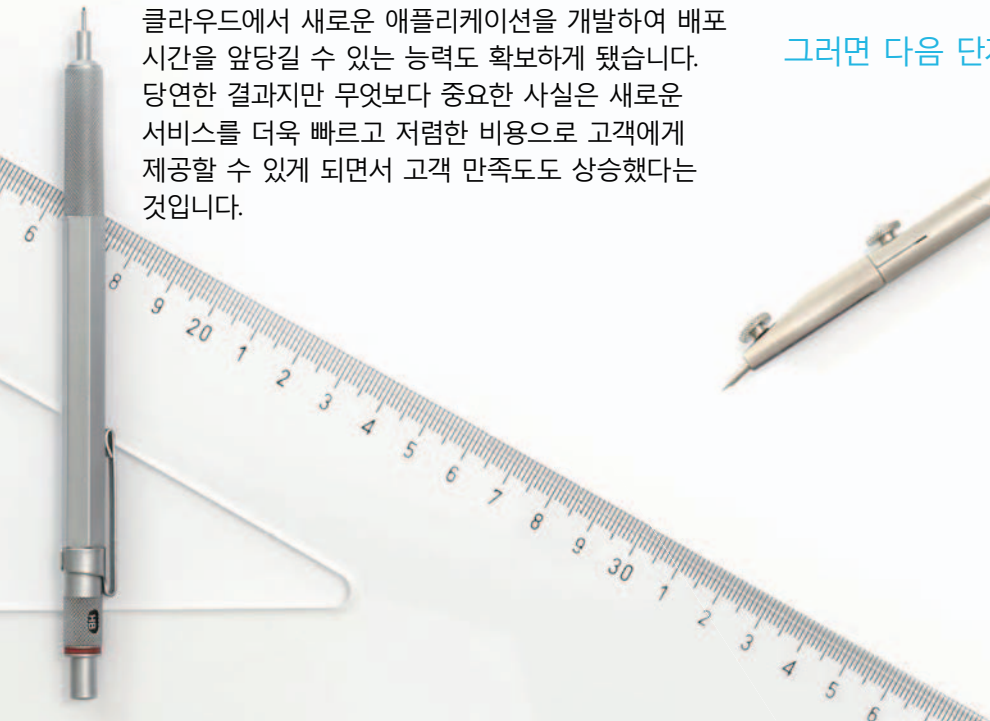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또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환경을 클라우드에 구현하고 그곳에서 테스트를 실시하는 데 익숙해지면, 실제 완전히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이전할 때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철저히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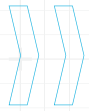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



"사내 테스트 환경보다
Microsoft Azure에
구축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경우도 많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한결
수월하게 시도해볼 수
있게 되었음에도, 위험
부담과 비용은 오히려
더 적어졌습니다."

— 버트 크레이븐(Bert Craven),
easyJet 엔터프라이즈 설계자





솔루션 지원 범위를 넓혀라.

3단계

시험 단계의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이전했으니 이제 테스트/개발 환경을 손쉽게 이용하고 일반적으로 클라우드에서 태동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예: 빅 데이터 및 IoT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고객에게 제공할 준비가 완료된 셈입니다. 이번 단계가 완료되면 많은 선행 투자 비용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위험 부담은 감소합니다. 또한 인프라를 단시간 내에 구축할 수 있고 환경이 유연해지며 개발 속도는 빨라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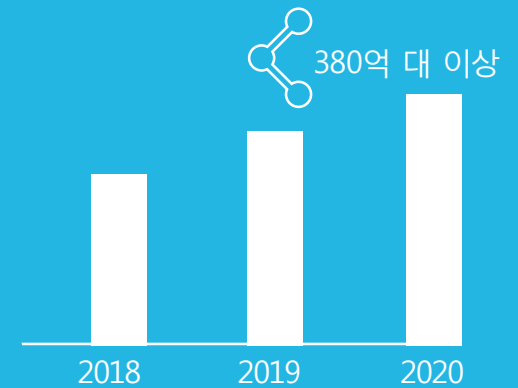
빅 데이터, IoT, 클라우드에서 태동한 기타 앱은 더 많은 스토리지 용량과 더 우수한 컴퓨팅 성능을 요구합니다. Azure의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이전하면 BI(Business Intelligence)를 이해하기 쉬운 차트와 그래프로 변환하는 강력한 시각화 도구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석해야 할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이

엄청나게 빠른 처리 속도를 발휘해야만 사용자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인프라에서는 이와 같은 애플리케이션 속도를 쉽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절감한 HarperCollins는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사의 비즈니스 솔루션을 개선할 수 있는 솔루션을 모색했습니다.

더 많은 스토리지 용량과 더 우수한 컴퓨팅 성능



Juniper Research의 연구에 따르면 2020년이면 인터넷에 연결된 장치의 수가 380억 대를 넘어설 전망입니다.²





솔루션 지원 범위를 넓혀라.

3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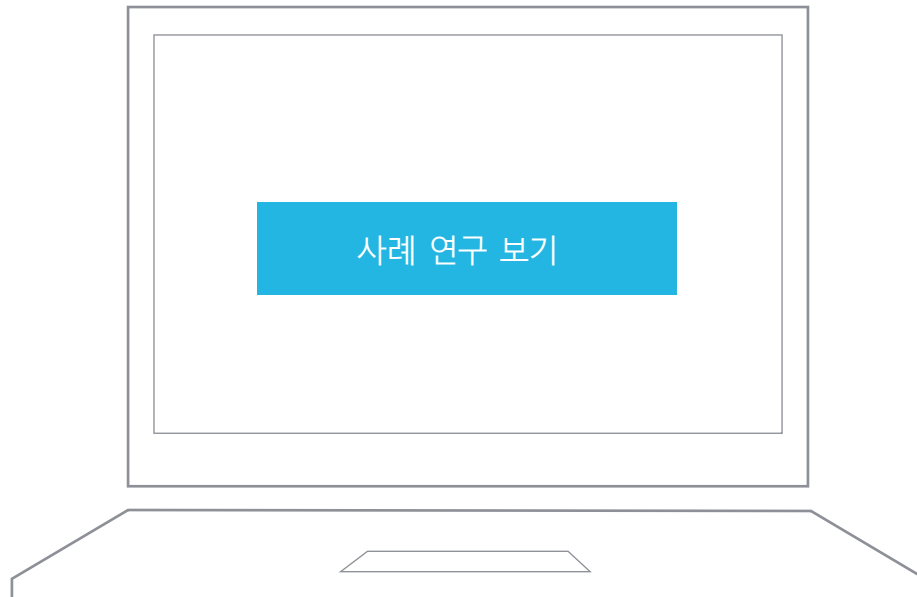
 HarperCollinsPublishers

사례 연구: HarperCollins

HarperCollins Publishers는 의사결정권자들에게 더욱 정확한 시장 조사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HarperCollins는 Microsoft의 파트너인 Adatis와 협력해서 불과 2주 만에 **Microsoft Azure**에 BI 솔루션을 구축했습니다. 이제 HarperCollins직원들은 필요할 때 본인의 책상에서 웹 기반 솔루션에 접속한 후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열람하고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 조사 데이터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유용한 비즈니스 통찰력을 확보하는 한편, 의사 결정 능력과 효율성을 개선하고 저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와 비즈니스 및 IT 민첩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유지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자사의 기밀 데이터를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밀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경우 몇 가지 핵심 사안을 염두에 두고 데이터의 보안, 비공개, 보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1. 데이터의 소유권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고객 데이터의 소유권을 보유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이유로 언제든지 해당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용도를 알아야 합니다.

고객 데이터가 절대 광고 혹은 데이터 마이닝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3. 데이터 통제권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저장 위치에 관계없이 데이터는 기업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저장되는 장소와 안전하게 데이터에 접근하고 삭제하는 방법을 기업이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법 집행 기관이 법적 절차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하길 요청한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는 반드시 이를 기업에 통지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 중인 시스템을 고려하라.

4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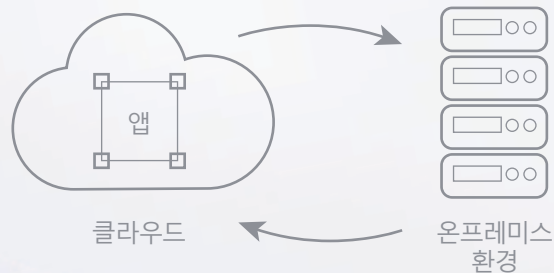
이상적인 IT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유연한 IT 환경으로 이전하는 마지막 단계는 현재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 중인 프러덕션 시스템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모든 앱을 실제 인프라에서 클라우드로 이전할 필요는 없지만 각 애플리케이션이 필요로 하는 바를 염두에 두고 구현한다면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이전할지 결정할 때는 이전하는 편이 더 나은 애플리케이션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요컨대, 프러덕션 워크로드는 다른 시스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립된 상태에서는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현대식 IT 환경은 온프레미스 프러덕션 시스템과 클라우드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서로 원활하게 연결하므로 직원들이 워크로드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유연성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기존 애플리케이션의 활용 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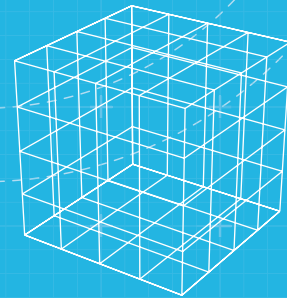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부하 분산을 자동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며 Azure Blob 스토리지와 CDN을 활용하며 캐시 및 검색 계층 같은 계층 전체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클라우드는 기업의 데이터 센터처럼 운영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셀프 서비스 방식이기 때문에 운영 구조는 온프레미스보다 훨씬 더 간소합니다. 특히, 사전 구성된 환경을 통해 자동화할 수 있다는 장점은 핵심 IT의 워크로드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Azure 스택으로 **Microsoft Azure**를 가동하십시오.

Azure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은 두 세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므로 IT 선택 사항이 더욱 다양해지면서 비용과 복잡성은 감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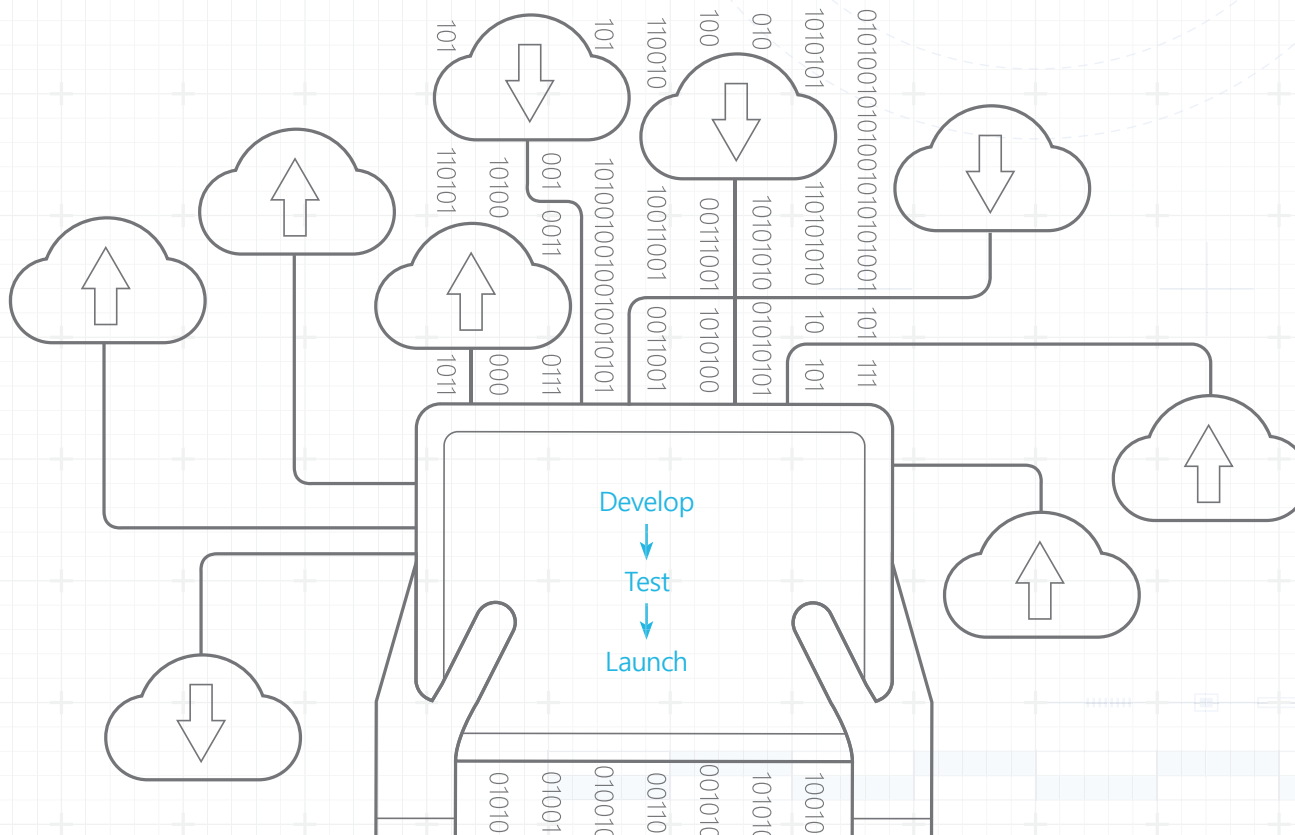
현제 사용 중인 시스템을 고려하라.

4단계

Microsoft Azure는 IaaS뿐 아니라 PaaS(Platform as a Service) 모델의 애플리케이션도 지원합니다. Azure App Service를 이용하면 개발자가 생산성을 증대하고 더 전략적인 작업에 주력하며 혁신에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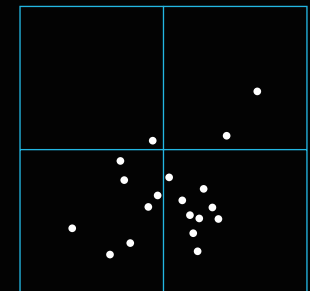
Microsoft Azure를 구현하면 기본적인 인프라에 신경 쓸 필요 없이 앱을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일에만 전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코드 작성,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및 출시, 그리고 업그레이드 작업을 통한 버그 수정에만 관심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PaaS는 IaaS의 상위 계층에서 실행되면서 자동으로 서버를 설정하고 인프라를 구성합니다.



Microsoft는 Gartner 매직 쿼드런트(Magic Quadrant)의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부문에서 2년 연속 리더 쿼드런트(Leaders Quadrant)로 선정됐습니다.

Gartner의 정의에 따르면 aPaaS(application platform as a service)란 "클라우드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배포, 실행하기에 적합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PaaS 형식의 플랫폼"입니다. aPaaS는 현재의 애플리케이션 설계 요건에 부합하도록 설계된 클라우드 서비스 제품군이며, 2015년에는 모바일, 클라우드, IoT, 빅 데이터 분석 기술도 aPaaS에 추가됐습니다.³



3. 출처: <https://www.gartner.com/doc/reprints?id=1-2C727LS&ct=150324&st=sb>



DIY를 넘어서

포춘 500대 기업이 아니더라도 클라우드 도입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모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모든 규모의 기업이 크게 성공한 기업들을 통해 얻은 교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용자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외에도 DIY 환경에서 타인이 얻은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다른 사용자가 개발해서 테스트를 마치고 구현한 도구나 바로 가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에코시스템으로 온프레미스 인프라를 관리하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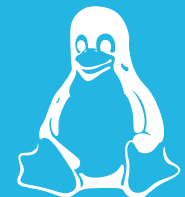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대단히 복잡하겠지만, 시간이 부족하고 예산이 빠듯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유형의 에코시스템이 이상적입니다. 또한 클라우드는 실시간 데이터를 토대로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예측 분석을 실시하는 데 이상적인 플랫폼입니다. Azure를 하이브리드 UBI 호스팅 솔루션의 일환으로 사용한 Towers Watson이 좋은 예입니다.

Azure Marketplace

Microsoft Azure에서 서버를 가동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온프레미스에서 서버를 가동하던 것과 동일하되, 그 활용 범위만 넓어지는 셈입니다. 사용자는 Azure 포털에서 IT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Cloud Foundry 같은 애플리케이션 플랫폼부터 Cassandra 같은 데이터 솔루션에 이르는 다양한 파트너의 지원이 뒷받침됩니다.

이와 같은 솔루션 중 다수는 종량제를 선택하거나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Azure에 구현된 VM 중 25%는 Linux를 기반으로 하며 Azure Marketplace 솔루션 중 60%는 Linux입니다.⁴



예측 분석:

Towers Watson 사례 연구



Towers Watson은 시스템에서 진행되는 분석을 꾸준히 보완하고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오프라인 R&D 환경을 지원하는 온프레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해 여행 정보나 센서 정보와 같은 분석 정보와 날씨 및 도로 상황에 대한 타사의 데이터 피드를 수집한 후 여러 보험회사에 실시간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출처: <https://michaelmckeownblog.wordpress.com/2015/11/06/microsoft-azure-now-even-more-open-with-red-hat/>

스스로 DIY 솔루션을 구상하십시오.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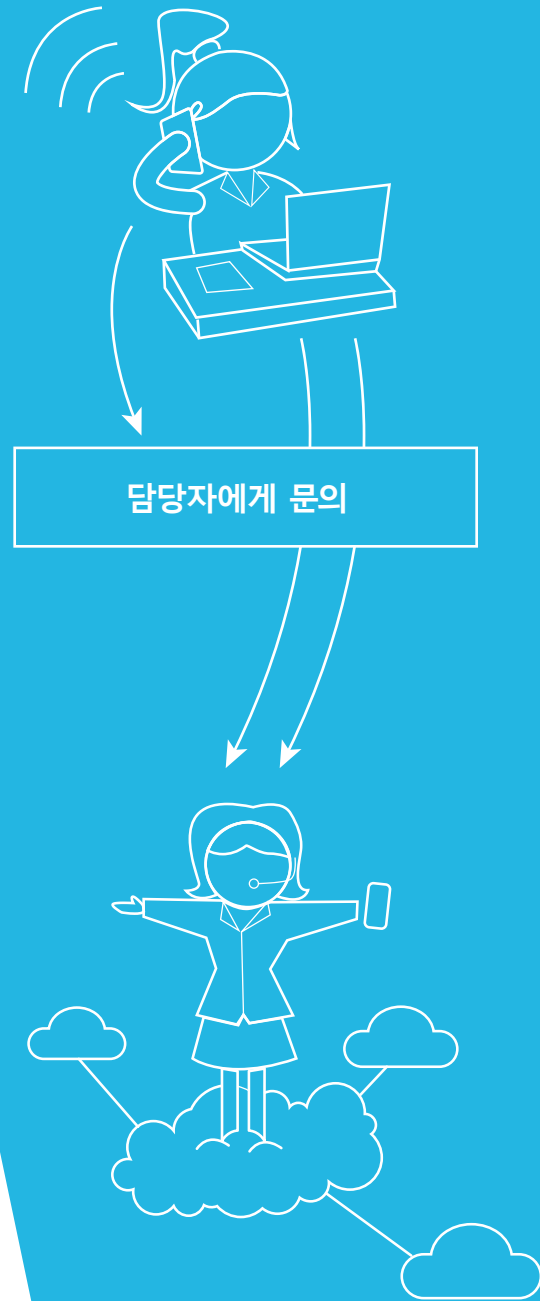
새로운 플랫폼을 익히고 이해하는 최선의 방법은 일단 약간의 시간을 들여서 '분해했다가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조립해보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장치와 기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짜내고 이론과 가정을 검증해보며 문제에 대한 실제 해결책을 시각화할 수 있는 가상의 놀이터가 다름아닌 그것입니다. **Microsoft Azure** 플랫폼은 필요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으로

작업할 수 있는 맞춤형 클라우드 인프라를 창출하는 데 이상적인 솔루션입니다. Microsoft Azure 플랫폼은 최상의 유연성을 목표로 맞춤형 청사진을 작성하는 데 이상적인 솔루션답게 무한한 자원을 지원합니다.

가장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는 현대식 IT 환경을 구현하고 더욱 빠른 시일 내에 목표를 달성하십시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까?
주저하지 말고 **Microsoft Azure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2016 Microsoft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본 문서는 오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MICROSOFT는 이 요약문에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URL 및 기타 인터넷 웹 사이트 주소를 비롯해서 문서에 포함된 정보와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Microsoft 제품의 지적 재산권은 Microsoft가 갖습니다. 내부 참조 목적으로 이 문서를 복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microsoft.com

한국 Azure 문의처: 080-808-0894

Azure 홈페이지: <https://azure.microsoft.com>